

코로나로 각종 모임 줄취소·수험생 초긴장



▲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이 긴장하고 있다. 사진은 수능 모의시험을 치르고 있는 학생들. 사진=KBS뉴스 캡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추세가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둔 학생·학부모, 예비 신랑·신부, 평범한 직장인 등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말연시를 앞둔 직장인들은 각종 모임을 속속 취소하고 있다. 그러자 연말 특수를 기대하던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비명이 나오고 있다.

수능 준비에 한창인 수험생들과 학부모들도 초긴장 상태다. 올해 수능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예년보다 약 2주 가량 늦은 12월 3일 실시된다. 수능을 앞둔 한 여학생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수능을 연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행사나 유명 가수의 공연 등도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취소됐다. 서울시는 올해 마지막 날인 다음 달 31일 ‘제야의 종’ 타종 행사를 축소하거나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2월 열릴 예정이던 경북 울진 죽변항 수산물 축제, 상주 꽃감 축제, 전남 보성 차밭 빛 축제, 2021년 대관령 눈꽃 축제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예비 신랑·신부들도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결혼식장의 수용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회사원 김 모(33)씨는 “지난 6월 예정됐던 결혼식을 12월 초로 미뤘다.” 며 “청첩장도 돌렸는데 며칠 만에 거리두기 단계가 또 격상되니 눈앞이 캄캄하다.” 고 말했다.

3분기 가계 저축은행 대출 역대 최대

올해 3분기 가계가 저축은행에서 빌린 돈이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말 현재 저축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29조5,913억 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1조8,267억 원 증가했다. 이런 증가 폭은 한은이 관련 통계를 편제한 2003년 1분기 이후 가장 큰 것이다.

한 분기에 1조 원 넘게 저축은행 가계대출이 증가한 것은 2017년 1분기(1조1,000억 원)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증가액이 역대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긴 때는 2015년 1분기(1조239억 원)였다.

2016년 1분기(1조3,000억 원) 이후 5개 분기 연속 1조 원 이상씩 늘던 저축은행 가계대출은 2017년 2분기(4,000억 원)부터는 줄곧 1조 원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전체 가계대출과 마찬가지로 저축은행 가계대출도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을 위주

로 증가했다.” 며 “빚을 내 생활자금을 마련하고 집과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제1금융권에 대한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저축은행 금리는 제1금융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아 가계 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 등 제1금융권의 대출을 계속해서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풍선효과로 저축은행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본다.” 며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대출이 증가함으로써 가뜩이나 좋지 않은 가계 사정이 더 나빠질 수 있다.” 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전체 여신은 올해 7월 역대 처음으로 70조 원을 넘기는 등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7월 70조6,117억 원에서 8월 71조6,962억 원으로 늘더니 3분기 말인 9월에는 73조2,318억 원까지 불어났다.

‘내년에도 집값 오를 것’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향후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소비자가 오히려 더 늘었다.

지난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이날 ‘2020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30으로 2013년 1월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았다. 10월(122)과 비교해 한 달 새 8포인트(p)나 뛰었다.

소비자동향조사의 각 지수가 100보다 큰 것은 해당 질문에 대한 긍정적 대답이 부정적 대답보다 많다는 뜻이고, 지수가 100을 더 크게 웃돌수록 긍정적 응답의 비율이 더 높다는 얘기다. 결국 조사 대상자 가운데 지금보다 1년 뒤 주택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한 사람이 더 늘어나면서 이 비율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른 셈이다.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월보다 6.3포인트 오른 97.9로 집계됐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 생활 형편, 생활 형편 전망, 가계 수입 전망, 소비 지출 전망, 현재 경기 판단, 향후 경기 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낮으면 장기평균(2003~2019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이 지수는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2차 확산의 영향으로 9월 79.4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과 함께 10월(91.6)에 이어 11월 까지 2개월 연속 회복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거리두기 1.5단계 확정(17일)과 시행(19일)에 앞서 10~16일 이뤄졌기 때문에 최근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다.



▲ 내년에도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소비자가 증가했다. 사진=KBS 뉴스 캡처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